

# 바람직한 방언 조사 방법과 활용 가치

박경래

세명대학교 미디어문학부

## 1. 국어생활과 방언

우리는 누구나 일상 언어생활에서 방언을 사용하지만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지리적인 거리에 따라 분화된 언어의 하위류를 지역 방언으로 인식하고 있어 경상도 말과 전라도 말이 다르고 함경도 말과 평안도 말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여기에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 직업 등 사회적인 배경에 따라 언어사용 양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지역이나 사회적인 출신 배경이 같은 사람들끼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언어 사용상 장벽이나 차이를 느끼지 못하지만 지역이나 사회적인 출신 배경이 다른 사람들끼리는 언어 사용상의 차이로 인해 장애를 겪는 경우가 있다. 언어는 사회와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사회나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사람들이 만나면 의사소통에 장애를 겪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장애의 가장 큰 요인은 상대방이 사용하는 방언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 기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려면 상대방이 사용하는 방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리적인 거리에 의해 형성된 지역 방언과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 형

성된 사회방언을 이해해야 한다. 지역 방언이나 사회 방언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은 필수적으로 방언 조사를 요구한다. 방언 조사의 내용과 방법은 연구의 목적이나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그것을 고려해서 정해지게 되고, 이렇게 조사된 방언 자료 역시 연구의 목적과 방향에 따라 그 활용 가치가 달라지게 된다.

## 2. 방언 분화와 방언 연구

한 언어 안에서의 방언 분화는 크게 두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하나는 지역이 다름으로써 성립하는 지역 방언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인 요인들에 의해 성립하는 사회 방언이다. 따라서 방언 조사의 내용과 방법은 방언 분화의 요인에 따라 방언 연구의 대상과 목적이 달라진다. 다시 말하면 방언 조사의 방법은 조사목적, 즉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에 따라 조사 내용과 대상, 그리고 조사방법이 달라진다. 가령, 지리적인 거리에 따른 방언 차이를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지리적인 차이에 따른 방언차이를 보여주는 항목들이 조사의 내용이 될 것이고, 사회 문화적인 배경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언어차이를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사회 문화적인 차이를 설명해줄 수 있는 항목들이 조사의 내용이 될 것이다.

전통적인 방언 연구에서는 주로 지리적인 거리에 의해 형성되는 지역 방언, 특히 농촌(시골) 방언을 연구의 대상으로 지역간의 방언차이에 주된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 대다수 주민들이 도시에 집중됨으로써 잡다한 배경을 가진 잡다한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에서 잡다한 언어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역간의 언어차이보다 오히려 사회적 요인에 의한 언어 차이에 주된 관심을 기울이게 됨으로써 도시방언학 내지 사회 방언학이 발달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 방언 연구에서는 사회적인 요인에 따라 조사와 연구 방법이 달라지게 되었다.

방언 조사의 방법에 대한 논의에서도 이 두 가지 영역(전통 방언과 사회 방언)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두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

은 크게 ‘무엇을,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조사 수집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다시 말하면 가장 바람직한 방언 조사 방법은 이들 고려 사항을 고루 만족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역 방언을 연구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 방언을 연구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하고 그것이 결정되어야 연구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무엇을 조사할 것인지, 어디에서 조사할 것인지, 누구에게 조사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방언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한 방언 조사의 필요성은 항상 대두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다소 넓은 의미의 방언 조사의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고 그렇게 조사된 방언 자료들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 3. 방언 조사의 방법

#### 3.1. 방언 조사 항목

방언 연구에서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에 부합하는 방언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 때 조사할 대상이 내용이다. 방언 자료를 조사할 내용은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어떤 방언의 종합적인 특징을 살펴보려 한다면 현지 조사를 떠나기 전에 그것을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적절한 분량의 조사 항목을 선정해야 하는데, 대체로 어휘, 음운, 문법 등 세 분야에 걸친 특징이 파악될 수 있도록 한다.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방언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좋은 질문지를 준비하는 일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점에서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준에 따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조건은 그 지역이나 사회의 특성을 잘 드러내 줄 수 있는 것부터 선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어느 지역이나 사회가 다른 지역이나 사회와 언어적으로 얼마나 다르고 어떻게 다른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둘째 조건

은 조사하기 쉬운 항목부터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정된 시간에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려는 방언 조사에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항목의 선정은 피해야 한다. 종합적인 특징을 파악하려는 방언 조사에서 어휘 항목이 많고 상대적으로 음운 항목이나 문법 항목이 적은 이유는 이 때문이다. 셋째 조건은 전래적인 조사 항목에 비중은 두어야 한다. 전통적인 방언 연구가 주로 도시화하지 않은 농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방언형을 보여줄 수 있는 전래적인 어휘들이 주축을 이루지만 신생어들도 훌륭한 조사 항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된다.

물론 연구 목표가 문법적인 특징만을 살펴보려는 것이라면 문법 항목만을 조사 항목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음운적인 특징만을 살펴보려는 것이 목표라면 음운 항목만을 조사 항목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고, 어휘나 의미의 특징만을 살펴보려는 것이 목표라면 그와 관련된 항목만을 조사할 내용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만일 사회언어학적인 연구가 목표라면 방언 분화와 사회적인 요인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항목들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이 때 사회적인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이 세대, 계층, 성별, 직업, 종교, 종족 등인데 이들 각각의 요인을 음운, 문법, 어휘의 분야에서 파악해 볼 수 있다. 가령 세대에 따라 음운체계의 변화를 알아보고 싶다면 음운체계를 세대별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항목을 선정해야 할 것이고 종교와 언어 사용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싶다면 종교와 관련된 용어와 표현을 조사 내용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사회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방언 조사 항목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사항은 다수의 제보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통계적인 처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소수의 제보자를 심층 조사할 것인가에 따라 조사 항목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통계처리를 위해서는 같은 현상을 보여주는 여러 개의 항목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참여 관찰 결과를 분석하려는 연구에서는 조사 항목보다는 언어 사용의 사회적인 맥락이 중요시되기 때문이다.

결국 방언 조사 항목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목적과 연구 방법, 즉 무엇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는 가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사 항목들이 선정되었다고 모든 준비가 끝난 것은 아니다. 한정된 시간에 효율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항목들을 배열해야 하는 일이 남아 있다. 같은 수의 항목을 조사하더라도 시간과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첫째 원칙은 처음부터 제보자가 흥미를 끌 만한 것부터 배열해야 한다는 것이다. 처음 만난 낯선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끌어 가도록 하려면 좀더 일상적이고 주변적인 화제부터 배열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촌에서 전래적인 방언을 조사하려 한다면 가벼운 가정사(家政事)나 농사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처음부터 대뜸 어려운 경제나 정치 이야기로 시작한다면 제보자가 긴장하거나 경계의 눈초리를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효율적인 조사를 위한 둘째 원칙은 의미 영역이 같은 항목들끼리 한 무리가 되도록 묶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벼농사에 관한 사항은 그것들끼리 한 자리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배열하되 그 중에서도 더 관계가 깊은 것끼리 가까이 놓이도록 하고 질문의 순서도 되도록이면 흐름이 있는 이야기가 되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벼, 벼이삭, 모내기, 벼 베기, 못자리, 김매다, 벧단, 타작, 볍씨, 모내기, (이삭)괘다, (볍씨)뿌리다’와 같은 배열보다는 농사짓는 순서를 고려하여 ‘못자리, 볍씨, (볍씨)뿌리다, 모내기, 김매다, 벼, 벼이삭, 벼 베기, 벧단, 타작, 벧짚’과 같은 순서로 배열하는 것이 제보자를 ‘벼농사’라는 한 가지 화제에 집중시키게 하고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지조사를 떠나기 전에 조사 항목의 배열에 들이는 노력과 시간은 집을 떠나 있는 시간과 반비례한다. 제보자로 하여금 처음부터 끝까지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조사 항목을 배열하는 것이 성공적인 방언 조사를 이루는 중요한 요건이 된다.

조사 항목의 선정과 배열은 궁극적으로 현지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려면 그에 부합되는 조사 항목들이 선정되어야 하고, 그 조사 항목들에 대한 방언형을

짧은 시간 동안에 정확하게 유도해 내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가 된다. 그러나 조사 항목의 선정과 배열이 일정한 원칙에 따라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 3.2. 방언 조사 질문지

방언 조사 항목이 정해지고 나면 그 항목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열하게 되는데 조사할 내용을 적은 것이 방언 조사 질문지다. 질문지는 격식 질문지와 약식 질문지가 있는데 약식 질문지는 비격식 질문지라고도 한다. 약식 질문지는

1. 범씨
2. 못자리
3. 김매다

와 같이 흔히 조사 항목만 표준어로 나열해 놓은 질문지다. 이에 비해 격식 질문지는 조사 항목을 제보자에게 물을 때의 질문문을 미리 밝혀 적은 것으로서 앞의 세 항목이라면

1. 이듬해에 씨로 쓰려고 따로 둔 좋은 벼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2. 범씨를 뿌리려고 논을 간 다음 흙을 고르고 판판하게 만든 자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3. 논이나 밭에 난 잡초를 뽑아내는 것을 무엇한다고 합니까?

와 같이 묻는 형식의 문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말한다.

격식 질문지는 묻는 형식이 일정하므로 조사자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사람이 여러 곳을 대규모로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하지만 질문지를 만드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고 현지에서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며 질문할 여유를 주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약식 질문지는 표준어로 된 조사 항목만을 나열하기 때문에 질문지를 만드는 노력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여러 사람이 통일성 있게 조사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혼자서 쓸 개인용 질문지라면 약식 질문지가 좋고, 짧은 기간에 방언 조사에 참여할 사람이 여럿이고 사전에 방언 조사에 대한 훈련을 받을 기회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격식 질문지가 효용성이 클 것이다.

### 3.3. 조사 지점

좋은 질문지를 마련하고 조사방법을 충분히 익혔다면 이제 조사할 장소를 찾아야 한다. 그 장소가 조사 지점이다. 즉 어디에서 조사할 것인가인데 이 역시 조사목적에 따라 달라질 문제다. 전래적인 방언을 수집하려 한다면 그것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곳을 찾아야 하고 도시방언을 수집하려 한다면 도시방언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는 도시 지역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어느 곳을 조사 지점으로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무엇보다 조사 목적에 부합되는 곳을 조사 지점으로 선정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대부분의 경우 조사 지점의 지리적,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령 두 지점 사이에 강이나 산맥이 가로 놓여 있거나, 지금은 같은 행정구역에 속하지만 역사적으로는 행정구역이 달랐다면 각각을 조사 지점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민속이나 풍속, 가옥구조, 주민들의 이주 상황, 농업 지역인지 어업 지역인지, 반촌인지 민촌인지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인구의 도시 이동에 따른 언어의 변화상을 관찰하려면 그런 도시를 찾아야 하고 전래적인 방언연구가 목표라면 전래적인 순수방언을 잘 간직하고 토속성이 짙은 집성촌이 이상적인 조사 지점이 될 것이다. 지리적,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고려한 조사 지점의 선정은 궁극적으로 좋은 제보자를 구하기 위해서다.

조사 지점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조사 지역을 잘 아는 현지 주민에게 자

문을 구하거나 문화원, 지역신문사, 면사무소 등 행정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 이 때 주의할 점은 조사 지점의 조건과 제보자의 조건만을 제시해주는 것이 좋다. 방언 조사가 목적임을 강조하면 대부분의 현지 주민이나 행정기관에서는 거의 지역 유지나 학식이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어 좋은 제보자를 구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문제되는 것이 몇 군데서 조사할 것인가인데 어느 특정 지역의 특정 현상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조사 지점의 수는 하나이거나 많아야 두세 곳이겠지만 지역별로 이 특정 현상을 비교하려 한다면 자연스럽게 조사 지점의 수가 많아질 것이다. 물론 방언 경계선을 설정하기 위한 조사나 전국규모의 방언 조사에서는 조사 지점의 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무런 방언차가 없는 곳이라면 한 곳에서만 조사해도 족하다. 이렇게 보면 이상적인 방언 조사 지점의 수는 방언차가 생기는 곳마다 한 지점씩 선정되는 수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방언차의 유무는 방언 조사를 해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 지점의 수를 미리 확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방언 조사를 떠나기 전에 기존의 방언 자료집이나 연구 결과 또는 예비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대략적인 방언권을 파악하고 이 방언권 가운데 한두 곳을 조사 지점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4. 조사원의 자질

방언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체 가운데 또 하나가 조사원이다. 조사원의 역량에 따라 방언 조사의 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조사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우선 조사원은 언어, 특히 방언에 대한 관심과 풍부한 기초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조사 내용과 관련하여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부정확한 응답을 유도하지 않고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 항목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공부해 두면 현지에서 그 이상의 보상을 받고도 남는다.

유능한 조사원은 밝은 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는 전문적인 음성 훈련을 통하여 주요한 음성 특징들을 정확하면서도 신속히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언 조사는 앉아서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험과 훈련을 통해서만이 유능한 조사원이 될 수 있다.

조사원은 사교성과 끈기도 있어야 한다. 처음 만난 제보자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하여 방언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붙임성과 현장 적응력이 필요하다. 때로는 상황에 따라 얼마간의 과장된 연기도 필요하다. 또한 며칠씩 현지에서 보내야 하는 어려움을 참고 끝까지 조사를 마칠 수 있는 인내심과 끈기 및 체력이 요구된다. 중간에 조사를 그만 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유능한 조사원이 되기 위하여는 장소의 변화에 잘 적응하는 적응력을 가져야 한다. 음식을 가리지 않고 잘 먹어야 하고 잠자리를 가리지 않고 아무 곳에서나 잘 수 있어야 조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3.5. 제보자의 선정 기준과 방법

방언 조사의 목표가 정해지고, 조사 지점이 정해졌으면 현지에 나가 방언자료를 제공해줄 사람을 구해야 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제보자다. 방언 조사의 성패가 제보자에게 달려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제보자를 구하는 일이 방언 조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동시에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제보자의 선정 기준 역시 조사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역 방언을 대상으로 하는 전래적인 방언 조사라면 토박이이고 신체 건강한 노년층을 제보자로 삼아야 한다. 토박이는 조사 지역에서 3~4대 정도는 살았어야 하고 제보자의 어머니도 같은 핵방언권 출신일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근래에는 농촌 인구의 도시 이주로 많이 퇴색되었지만 한 마을에서 일가들이 여러 대를 살아오는 집성촌에서 제보자를 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또 하나의 조건은 제보자의 언어가 굳어지기 전인 4,

50대 전에 외지생활을 했거나 공직 생활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외지생활은 그곳 방언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공직 생활은 표준어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토박이로서의 순수성을 잃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박이와 이주자의 방언 사용 정도를 비교한다든가, 외지생활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한다든가, 공직 생활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하려는 조사에서는 이주자나 외지생활자, 공직 경험자 등도 제보자로 삼을 수 있다. 또한 학력이나 직업을 고려하는 조사라면 학력이나 직업의 차이를 고려하여 제보자를 선정할 수도 있다. 사회적인 요인을 고려하는 조사에서는 사회적인 요인을 반영하고 있는 제보자가 선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제보자가 토박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사회방언 조사에서도 요구된다. 가령, 동일 지역에서 노년층 세대와 청년층이나 장년층 세대간의 방언 차이를 비교한다면 두 세대를 대표하는 사회적인 요인이 제보자 선정에도 고려되어야 한다. 토박이라도 노년층의 학력은 무학이나 초등학교 정도인데 비해 장년층은 고졸이나 중졸 정도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한 지역의 방언 특징을 알아보기 위한 방언 조사에서는 전래적인 방언 조사나 사회방언 조사에서 다같이 토박이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제보자가 노년층이어야 한다는 조건 역시 전래적인 방언 조사에서는 필수적이다. 이 때의 노년층은 70대의 화자가 좋다.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은 노년층에 비해 표준어 교육이나 매스컴에 노출될 기회가 많고 외부와의 접촉 기회도 많기 때문에 전래적인 방언의 순수성을 간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조건도 방언 조사에서 항상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사회방언을 조사할 경우에는 반드시 노년층을 제보자로 삼아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의 방언 사용 실태를 조사하려면 대학생을 제보자로 삼아야 하고, 초등학교들의 방언 사용 실태를 조사하려면 역시 초등학교를 제보자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대간의 방언 자료를 비교하여 언어변화의 양상을 알아보려 한다면 세대를 달리하여 제보자를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지역간의 방언차를 비교하려 한다면 조사된 자료가 균질

해야 하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선정되는 제보자 조건도 같아야 함은 물론이다.

제보자가 신체 건강해야 한다는 조건도 중요하다. 귀를 먹거나 이가 빠진 제보자도 피해야 한다. 말소리를 잘 알아듣지 못하거나 발음이 부정확하다면 음운이나 음성적인 조사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기 때문이다. 시력이 좋지 않거나 기침을 자주하는 해소병 환자도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제보자 선정에서 배제하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별에 따르는 언어차이를 검토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면 노년층의 제보자 선정에서는 성별이 문제되지 않는 것 같다. 노년층의 토박이라면 남자보다 여자가 전래적인 방언을 더 잘 보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자보다 좋은 제보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노년층 여자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 같은 핵방언권 출신이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언어에 더 민감하다는 점에서 젊은층의 경우는 조사 목적에 따라 성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 방언간의 비교를 위한 조사에서도 자료의 균질성 확보를 위해 성별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의 조건 외에도 학력과 지능, 사회적인 신분과 직업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전래적인 방언 조사에서는 무학자를 제보자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현재는 그러한 조건을 갖춘 제보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현지 상황에 따라 초등학교 학력 정도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같은 지역에서 무학자와 고등교육을 받은 식자층 사이에 어느 정도의 방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학력을 고려한 제보자 선정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이전에는 농업 국가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래적인 방언 조사에서는 제보자의 직업을 농업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어촌이나 광산촌 또는 특수 직업군의 방언을 조사하고자 한다면 그 직업에 종사하는 제보자를 선정해야 한다. 직업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것이 사회계층인데 서민층이며 중산층인 자작농이 가장 무난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사회계층간의 언어차이를 조사하는 것이라면 사회의 각 계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제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제보자가 갖추면 좋을 또 하나의 조건은 과목정보보다는 성실하고 사교적이며 다변형의 지적인 제보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작업을 능률적으로 진행하는데 유용한 조건이다. 결국 가장 이상적인 제보자 조건은 자기 고장 방언을 가장 이상적으로 사용하면서 조사 목적에 부합하는 방언 화자라고 할 수 있다.

제보자는 한 지점에서 주제보자 한 사람을 원칙으로 하고, 한두 사람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실제 현지조사에서는 주제보자 한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험이다. 한꺼번에 두 사람 이상을 며칠씩 한자리에 붙잡아 두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부득이하여 조사기간 동안 제보자가 바뀌는 경우에도 한 자리에는 한 사람을 주제보자로 삼는 것이 좋다. 특히 요즈음에는 한가하게(?) 시간을 내줄 제보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요컨대, 가장 바람직한 제보자는 조사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제보자가 선정되었으면 면접을 통하여 실제 방언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 3.6. 방언 조사 질문 방식

방언 조사를 하기 위한 질문방식은 직접질문법과 간접질문법으로 나뉘는데 직접질문법은 번역식 질문법이라고도 한다.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 수집된 방언 자료의 질과 조사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질문방식이 방언 조사의 효율성과 성패를 좌우하기도 한다.

직접질문법은 [‘벼’를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나 [‘그 일 때문에 일부러 여기까지 오셨어요?’ 할 때의 ‘일부러’를 여기서는 어떻게 말합니까?]와 같이 표준어를 제시해주고 그에 대응하는 방언형이 무엇인지를 말하게 하는 질문방식이다. 제보자가 방언과 표준어를 다 잘 알고 있고 조사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경우에 유용하나 이런 제보자의 경우 방언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이 방식은 잘 쓰이지 않는다.

간접질문법은 조사하고자 하는 표준어나 방언형을 제보자에게 직접 알려주지 않고 방언형을 말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이는 다시 몇 가지로 하위분류할 수 있다.

첫째, 명명식 질문법이 있다. 이 질문법은 그림이나 사진 또는 실물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또는 [이게 뭐지요?] [그럼 저건 뭐니까?]와 같이 묻거나, [어머니의 여동생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와 같이 어떤 사물의 특징을 말로 설명하여 묻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한다. 어떤 동작을 시늉하여 묻는 질문법도 여기에 속하는데 방언 조사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다.

둘째, 완결식 질문법이 있다. 이 질문법은 적당한 문장을 제시하면서 문장 끝에 빈칸을 남겨두고 제보자에게 빈 칸에 들어갈 말을 채우도록 하는 방법이다. 가령, [남편이 죽고 여자 혼자 사는 사람( )]과 같이 물어 ‘과부’를 유도하고 이어서 [그러면 아내가 죽고 혼자 사는 남자는 ( )]와 같이 물어 ‘홀아비’를 유도하는 방식인데 제보자가 언어적인 감각이 있는 경우엔 유용한 조사방식이다.

셋째, 치환식 질문법이 있다. 치환식 질문법은 일종의 완결식 질문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서로 대립되는 한쪽 형태를 완결식으로 대답하게 하고 나머지 한쪽을 역시 완결식으로 대답하게 하여 필요한 방언형을 조사하는 방식이다. 이 질문 방식은 동사의 활용형, 특히 불규칙 활용형이나 청자 경어법의 활용어미를 조사할 때, 또는 하나의 어휘장에 속하거나 서로 대립되는 어형을 조사할 때 유용한 조사방식이다.

넷째, 이야기식 질문법이 있다. 이 질문법은 한 번의 질문으로 관련된 여러 개의 어형을 조사할 때 유용한 방식이다. 가령, [농기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라고 물어 ‘삽, 괭이, 곡괭이, 호미, 낫, 쟁기, 씨레, 번지…’ 등을 한꺼번에 조사할 수 있고 대화 형식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조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제보자가 나열하는 방언형의 각 어형이 조사하려는 방언형과 일치하는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에서 그 방언에 대해 어느 정도 익숙해진

뒤에 이용하면 좋은 조사방식이다.

다섯째, 역질문법이 있다. 앞의 네 가지 질문법이 어떤 개념을 나타내는 어형을 조사하기 위한 것인데 반해 이 질문법은 먼저 방언형을 제시해주고 그 방언형의 의미와 용법을 묻는 질문법이다. 이 질문법은 같은 방언형을 쓰더라도 그 방언형이 나타내는 개념이 지역에 따라 다르거나 분화를 이르는 경우가 있고, 방언에 따라 형태의 분화가 있을 때 그것들이 부분적으로 의미분화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이러한 의미분화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이 질문법이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이 외에도 미리 몇 가지 방언형을 제시해주고 제보자가 사용하는 방언형을 그 가운데서 고르게 하는 질문법도 있는데 이것을 선택질문법이라고 한다. 이 질문법은 조사자가 조사하고자 하는 지역의 방언에 대한 예비지식이 많아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따라서 방언 조사가 끝난 후 확인조사의 방법으로 많이 이용되는 질문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좋은 방언 조사 방법은 조사자가 제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관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조사방법은 많은 노력과 시간과 경비가 들기 때문에 단기간의 조사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조사 방법이 여러 가지 화제를 제시하여 제보자로 하여금 많은 이야기를 오랫동안 하도록 유도하고 그것을 채록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하나하나의 항목을 질문하여 유도된 방언형이 자연스럽게 나온 방언형일 수 있다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역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다는 약점이 있다.

따라서 방언 조사의 질문 방식은 어느 하나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사 항목이나 조사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사 현장의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적절한 질문 방식을 사용하는 것도 조사자의 능력이다.

### 3.7. 면접과 자료정리

적절한 조사 지점을 선택하여 그곳에서 바람직한 제보자를 선정했다면 면접을 통하여 준비해간 질문지에 따라 방언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면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방언 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고 면접도 요령있게 진행해야 한다.

면접 조사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소개받거나 스스로 찾은 예비 제보자를 만나 예비 면접을 해 보는 것이다. 흔히 마을 이장이나 동장 또는 면사무소 등에서 소개받는 경우 방언 조사의 목적이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주어도 그 지역을 대표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유식자나 지역 유지를 소개해 주는 경우가 많아 제보자로서 적절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비 면접을 통하여 마을 주민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마을의 역사는 어느 정도 되었는지, 여행 경험이 있는지, 외지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지, 배우자의 출신지는 어디인지 등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물으면서 제보자로서의 적격성 여부에 대하여 탐색해보는 시간이다. 만일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주변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제보자가 될만한 다른 사람은 없는지 우회적으로 물어보고 이야기를 대강 마무리 지어야 한다. 마을 회관 같은 자리에서 여러 명을 동시에 점검할 때는 그 가운데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점찍어 두었다가 따로 찾아가거나 또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한테만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집중시킴으로써 다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2선으로 물러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제보자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끼어드는 경우도 있는데 유능한 조사원이라면 이런 사람을 무례하지 않게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터득하고 있어야 한다.

제보자가 결정되었으면 면접할 장소를 정해야 한다. 면접 장소로 가장 바람직한 곳은 ‘제보자가 가장 마음 편하게 여기는 곳’인데 가장 바람직한 곳이 ‘제보자의 집’이다. 그러나 이 역시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다.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름에는 마을 정자나 느티나무 밑에서 할 수도 있고 겨울에는 사랑방이나 노인정에서 할 수도 있다.

어느 경우이든지 주변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면접 장소를 제보자의 집으로 하면 제보자와 금방 친숙해질 수 있어 허물 없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조사할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방언을 자연스럽게 채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제보자와 친숙해져 제보자의 집에서 숙식을 해결하게 되면 야간에도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언 조사가 될 것이다. 제보자의 집에서 숙식을 하려면 조사자가 묵을 수 있는 여유 방과 식사를 준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여건이 안 되면 같은 마을의 다른 집에서 묵는 것이 좋으나 제보자가 부담스러워한다면 교통수단을 고려하여 인근의 숙박시설 등을 이용해야 한다.

적절한 제보자가 선정되고 조사장소가 결정되었으면 다음으로 할 일이 본격적인 면접이다. 면접에서는 제보자 스스로가 조사자에게 무엇인가 가르쳐줄 것이 있다는 자신감과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조사자가 제보자를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달려 있다. 가령, 제보자가 노년층이라면 [요즘 젊은 학생들은 ‘씨레’나 ‘보습’ 같은 농기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무엇에 사용하는 것인지도 모르는데 이런 것을 지금 배웠다가 학생들을 가르쳐주려고 한다]고 하면서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런 말은 영원히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배워서 기록해야 하는데 할아버지가 그걸 가르쳐주실 적격자]라고 하면서 제보자를 추켜올려 제보자가 스승이고 조사자가 제자라는 인식이 들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보자가 공명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녹음을 하면서 [이렇게 녹음한 말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후손들에게 남겨 계속 배우게 할 것]이라고 하는 등의 말도 효과적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제보자가 신문하는 것처럼 여길 수 있는 [조사(調査)]라는 말은 절대로 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제보자와 조사자의 관계가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관계로 되었다면 준비해 간 질문지의 순서에 따라 차례로 질문을 해 나가면서 대화를 이끌어가야 한다. 이 때의 대화는 지루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끌어가야 하지만 조사 항목에 따라서는 이야기식의 대화가 어려운 것들이 있으며

로 그때그때마다 적절하게 대처하되 전체적인 흐름은 이야기식의 대화를 유지하라는 것이다. 방언 조사의 방법에는 일정한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대처해야 하는 상대적인 방법이 있을 뿐이다.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방언 조사 방법은 끊임없는 노력과 수없는 시행착오와 경험에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방언 조사는 제보자의 전폭적인 도움이 없다면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방언 조사에 협조해준 제보자에게는 응분의 사례를 해야 하는데 제보자에게 유용한 선물이나 가족들을 위한 용품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사가 시작되고 얼마 후 휴식 시간 등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 부담이 될 만한 선물을 주어 제보자가 끝까지 조사에 응해야겠다고 마음먹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제보자의 집에서 숙식을 하는 경우 조사를 끝낸 후 숙식비로 충분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나 사례비 내지 일당으로 현금을 지불하는 것은 어떤 경우이든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지의 여건이 한가하지도 않고 인심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면접이 시작되면 제보자로부터 제공받은 방언 자료를 기록해야 한다. 기록 방법은 조사 노트에 하는 방법과 녹음하는 방법이 있는데 동시에 병행하는 것이 좋다. 방언은 문자로 기록할 수 있는 언어적 정보만이 아니라 음성적 정보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녹음은 필수적이다. 녹음기는 양질의 음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리형 마이크를 장착할 수 있는 녹음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DAT 녹음기는 음성 정보를 가장 잘 보존해주고 녹음한 자료를 파일로 저장하는 데에도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가격이 다소 비싸다. 이에 비해 MD 녹음기는 디지털 신호로 녹음한 자료를 별도의 장치 없이 바로 컴퓨터 파일로 저장하여 보존할 수 있고 파일로 저장된 음성자료를 음성분석기로 불러내어 바로 분석할 수 있으며 가격도 싸고 한 번에 녹음할 수 있는 시간이 길다는 장점이 있으나 DAT 녹음기에 비해 음성 정보의 손실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녹음기는 부분부분 보조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조사의 전과정을 녹음해 두면 후일에도 살아있는 방언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채록의 전과정에 대한 녹음

은 절대적이다. 녹음해 두지 않으면 한 번 사라진 음성은 두 번 다시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마이크의 위치는 양질의 녹음이 될 수 있도록 가슴보다 약간 위쪽의 옷속에 꽂아두거나 짐게로 고정시킬 수 있는 핀 마이크가 바람직하다.

방언 자료를 전사(轉寫)할 때는 음성기호와 한글 전사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 한글 자모로 표기할 수 있는 방언형은 한글 자모로 표기하고 불가피한 경우나 음소 단위 이하의 음성적 특징을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음성기호를 사용하는 것이 나중에 자료를 정리할 때 도움이 된다. 한글 자모로 전사할 때는 맞춤법식 전사보다 소리나는 대로 적는 것이 문법적인 정보를 파악하는데 효율적일 수 있는데 어떻게 표기하든 나중에 혼란이 없도록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나중에 자료를 해석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방언 자료를 수집할 때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보조기호를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회적인 요인을 고려하는 방언 조사에서는 조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명시하여 나중에 조사 방법과 조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4. 방언의 활용가치

언어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를 반영하듯이 방언도 그 방언을 사용하는 사회를 반영한다. 따라서 방언에 대한 이해는 그 방언이 사용되는 사회를 직간접적으로 이해하는 한 방법이 된다. 이 점에서 정밀하고 정확하게 조사된 방언 자료들은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무엇보다 다양한 방언 자료들은 국어 생활을 윤택하게 해줄 수 있다.

‘사회 성원들이 생활하면서 만들어낸 공통의 생활양식’이 문화라고 할 때 어떤 지역의 문화적인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 지역의 방언이다. 이런 점에서 각 지역의 정서와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다양한 방언을 수집하여 중앙어에 없는 어휘들을 보완함으로써 국어 어휘를 확장할 수 있다. 이렇게 수집된 다양한 방언들로 방언 어휘사전을 만들 수

도 있고, 방언으로 이루어지는 대화를 채록하여 방언 문장사전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러한 사전은 표준어 사전이 가질 수 없는 살아있는 언어사전이라는 점에서 훨씬 가치가 있다. 음성정보를 기록한 방언 자료로 방언 음성사전과 용례 음성사전을 구축할 수도 있다. 이렇게 구축된 음성 방언 자료를 보존함으로써 방언을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지역문화원을 설립하여 생활 민속 가이드의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여 누적된 음성 방언 자료들은 오랜 세월이 지나면 한국어 박물관의 주요 자료가 될 것이다.

지역 방언에 대한 조사는 방언이 반영된 문학 작품의 창작과 이해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 정서가 반영된 문화를 이해하고 보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문학 작품이 언어예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예술적인 표현 수단인 언어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문학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특히 향토성이 짙은 문학 작품 속에 반영된 방언의 이해는 문학 작품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김소월이나 백석의 시, 김유정이나 최명희의 소설 등에 쓰인 방언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문학 작품을 오해해 왔던 점을 상기할 때 방언이 문학 작품의 이해와 해석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예컨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원도 출신인 김유정의 소설 ‘동백꽃’을 흔히 붉은색 동백꽃으로 오해하고 있다. 그런데 소설에서는 ‘산 중턱에 한창 피어 퍼드러진 노란 동백꽃’의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냄새’로 묘사되어 있다. 강원도 방언에서는 ‘동백꽃’이 노란색이고 이것이 표준어의 붉은색 ‘동백꽃’과 다른 종류인 ‘생강나무 꽃’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비로소 소설 ‘동백꽃’을 제대로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정지용의 시 ‘향수’에 나오는 ‘얼룩백이 황소’의 ‘얼룩백이’가 젖소가 아닌 우리의 토종 한우에 흰 점이 박힌 모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비로소 뒤에 이어지는 ‘개으른 금빛 울음을 우는 곳’이 이해되고 동요의 ‘얼룩송아지’와 ‘얼룩소’가 가진 정서와 문화가 이해된다.

거꾸로 방언은 문학 작품 창작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역의 정서와 문화를 응축하여 표현할 수 있는 방언을 구사함으로써 지역과 지역 문화와 정서를 반영하는 문학 작품을 문학 작품답게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방언은 단순히 지역어나 사투리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언을 사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삶을 반영하게 된다.

방언을 콘텐츠화 할 경우 방언을 문화 산업의 밑거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즉 방언은 언어 자료로서의 가치뿐만이 아니라 방언을 타 학문 분야나 산업과 연계시킬 때 학제간의 연구 및 산업화의 원천이 될 수 있다. 현재 방언으로 휴대전화의 음성을 지원하는 것도 방언을 산업과 연계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표준어로만 되어 있는 전래동화를 각 지방의 방언으로 변환한다면 그 지방의 방언을 반영하는 지역의 정서와 문화를 전달하고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렇게 방언으로 변환한 동화를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등 문화 산업과 연계시킨다면 ‘빨간머리 앤’이나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와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를 보고 머리를 붉게 물들이고 환상에 빠진 공주병 환자가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서에 어울리는 ‘콩쥐와 밭쥐’나 ‘해와 달 이야기’를 산업화하여 가족과 이웃을 생각하게 하는 문화 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순 우리의 토종 방언을 문화와 사업에 연계시킬 때만이 가능하다.

## 5. 맺음말

방언은 부단히 생성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부단히 소멸되기도 한다. 방언의 소멸은 신생 방언보다는 전래적인 방언에서 두드러지게 마련이다. 더욱이 전래적인 방언을 구사할 줄 아는 노년층이 점차 사라져가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 번 사라진 전래 방언은 두 번 다시 채록하고 조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산업화 이후 급격히 사라져가는 방언을 시급히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한 국가의 언어 정책은 현재의 표준어뿐만 아니라 과거의 언어에 대하여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서 방언 조사는 필요하다. 국어 정책이나 문화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방언 조사와 연구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특정 개별 방언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한 개인이 수

행할 수도 있겠지만 광역 방언이나 전국적인 방언 조사와 연구는 개인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국가나 자치단체 또는 문화 단체 등의 후원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방언 조사의 요령과 방법에는 어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방언 조사의 상황과 조건이 고정 불변이 아니라 항상 유동적이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방언 조사의 요령과 방법도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현장에서 적절하게 선택해서 사용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방언 조사 방법은 조사 현장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철저한 사전준비와 수많은 현장 경험만이 가장 바람직한 방언 조사의 좋은 스승이자 동료다.

방언은 눈에 드러나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무형의 문화 재산이라는 가치를 인식하는 것만이 우리 후손에게 한국인의 정신과 정체성을 온전히 물려줄 수 있다. 모든 학문의 도구가 언어이며 문학의 전체가 언어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의 방언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방언은 살아있는 생물이기 기록되어 있는 화석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에 방언을 조사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곽충구(1983), “충청·경기방언의 현지조사 과정과 반성,” 『방언』 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박경래(1993), “충주방언의 음운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이상규(1983), “경북방언의 현지조사 과정과 반성,” 『방언』 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이상규(1989), 『방언연구 방법론』, 대구: 형설출판사.
- 이상규(1999), 『방언학』, 서울: 학연사.

- 이승재(1983), “전북·경기·충북방언의 현지조사 과정과 반성,” 『방언』 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이익섭(1983), “방언 조사 질문지의 질문법에 대하여,” 『방언』 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이익섭(1984), 『방언학』, 서울: 민음사.
- 이익섭(1994), 『사회언어학』, 서울: 민음사.
- 정인상(1983), “경남방언의 현지조사 과정과 반성,” 『방언』 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정지영 역(1980), “방언의 조사 연구 방법,” 『방언』 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한영균(1983), “강원·경북울릉·제주방언의 현지조사 과정과 반성,” 『방언』 7, 한국정신문화연구원.